



후원회소식

발행일/1993. 6. 15.
발행인/권오현
발행처/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주소: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 전화(02) 763-2606, 745-5604



내몸은 식민지 조국을 추모하는 마지막 시
그리하여 추모시를 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시작되게 하소서.

슬픈 소식입니다

조국의 자주와 통일을 위해 애쓰다 38년의 옥고를 치루시고 89년 사회안전법 폐지로 청주감호소에서 출소하셨던 이래선 선생님께서 오랜 옥고로 얻은 지병으로 투병하시다가 93년 6월 11일 새벽 5시에 72세의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 고 이래선 선생 약력

1992. 8. 2. 충북 청원 출생
1945. 해방까지 청주에서 교원생활을 하다 외세에 의해 민족이 분단될 위기를 보고 민족해방운동에 뛰어듬
1953. 32살의 한창나이에 국가보안법으로 투옥
1976. 출소와 동시에 대전보안감호소 수감
1989. 사회안전법 폐지로 68살의 병든 몸으로 석방

1990. 청주보안감호소 출소자 49명과 함께 사회안전법의 부당함을 밝히려 소송을 내는 등, 얼마남지 않은 생의 짐에 불을 돋우어 가려진 역사의 한 장을 밝히려 애써옴
1993. 6. 11 성가복지병원에서 72세의 나이에 지병인 위암으로 별세.

고 이래선 선생님 병상일지

정리 김은숙 (후원회원 · 한신대 국문학과 87학번)

5월 18일- 5개월전 위암임이 확인된 후 제기동 탕제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입원하심. 영양주사와 미음을 드시지만 계속적인 구토로 거의 탈진상태이심. 다행이 통증은 안느끼신다고 함.

5월 19일~21일- 입원일보다 조금 나아지신 듯 함. 빈혈상태 확인을 위한 피검사를 받으셨고 영양주사와 함께 미음과 과일즙도 조금씩 드심. 영양부족으로 인해 손과 발이 많이 부은 상태이며 구토와 딸꾹질이 심해 주사를 맞고 계심.

5월 22일- 체온 · 혈압 · 맥박은 정상. 오후에 목욕을 하신 이후 기분이 다소 나아지셨으며 딸기, 사과즙, 미음을 조금씩 드심. 가래에 풋덩이 같은 이물질이 섞여 있으며 딸꾹질이 심하실 경우 한시간 정도씩 계속됨. 매우 지친 모습이다.

5월 23일- 새벽부터 계속적인 구토로 인해 오후에는 거의 탈진상태이심. 간간히 따뜻한 물로 입속을 헹구시며 구토를 멎게 하는 주사를 놓아 드림. 점심 때부터 식사를 전혀 못하심.

5월 24~25일- 피가 부족하다고 해서 링겔을

중단하고 피주사를 놓아드림. 구토와 땀꾹질이 계속되면서 무척 고통스러워 하심. 대변이 나오지 않아 24일 새벽 관장을 함. 25일 아침 입원 일로부터 며칠이 지났는지 날짜를 확인하시며 몇 번이고 되뇌이심. 오늘 이발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발사가 모레온다고 말씀드리니 날짜를 꼽으신 후 그때면 괜찮다고 하심. 돌아가시기 전에 이발도 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심.

5월26~27일- 낮에는 상태가 좋으셨으나 밤이 되면서 구토가 심해졌고 주무시면서도 무의식 중 구토물을 계속 흘리심. 정신도 아직은 맑으신 편이나 갈수록 기력도 약해지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힘에 부쳐 하심.

5월28~29일- 하루종일 구토 멈추지 않음. 주무실때도 코와 입으로 끊임없이 구토물이 흐른다. 그러나 탈진상태에서도 식사 때 나오는 미음은 거르지 않고 드시려고 애쓰심. 탕제원에서 지어온 약도 꼬박꼬박 챙기심.

5월30~31일-입원하신 이후 가장 심하게 구토를 하셨다. 새벽 3시경부터 시작된 구토는 다음날 새벽이 되면서 겨우 적어졌고 선생님은 정신이 혼미하심. 담당의사도 어쩔 수 없다며 깨끗이 닦아드리라는 말을 할 뿐이다.

“장작개비처럼 말랐다”는 말은 바로 선생님 같은 분에게 적합한 표현일 것이다. 입원하신 이후 침대에서 내려오시는 일이라곤 소변보실 때 외엔 없어 온몸이 배기고 피가 통하지 않아 자주 위치를 바꿔드리고 맷사지해 드리지 않으면 욕창이 생길 염려가 큼.

6월1일- 입원하신 후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

고 복도와 휴게실을 왔다갔다함. 찾아오는 손님에겐 “요며칠 많이 나빠져서 말이 안나와 미안해요”라고 하실만큼 정신이 또렷하시다. 그러나 갈수록 기력이 약해지셔서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조차 힘에 겨워 하심.

6월2일- 상태의 악화, 호전이 예측할 수 없이 반복되고 있다. 병으로 인한 고통보다는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통증을 견디기 힘들어 하심. 그러나 진통제는 최대한 자제하고 계신다. 엉덩이에 생긴 욕창 때문에 옆으로 자주 돌아눕혀 드려야 함.

6월3일- 며칠전 침대 밑에 깔아드린 공기침대가 소용없다고 하셔서 빼드림. 한동안 거부하시던 영양주사를 다시 맞으심. 평소와 다르게 식욕도 왕성하시고 짜증도 내시는 게 웬지 예감이 좋지 않다. 요며칠 말하기도 힘들고 계속 잠이 온다며 이상하다고 하심. 새벽부터 소변을 못보심.

6월4일- 새벽부터 갑자기 구토가 심해지심. 목에서 가래끓는 소리가 나며 숨쉬기 힘들어 하신다. 오전 10시 30분경 산소호스, 소변호스를 꽂은 후 반흔수상태로 들어감. 선생님을 부르면 겨우 알아 들으시는 듯 눈을 조금 움직이나 말은 하지 못하심. 담당의사가 오늘을 넘기기 어렵다고 함. 호스로 가래를 뽑아드리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며 피까지 토하셨다. 그러나 24시간 소변을 못보면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점심 때쯤 600cc, 저녁에 450cc를 보셨고 자정이 넘으면서 호흡도 안정되고 상태가 호전되고 있음.

6월5~6일- 고비를 넘기심. 담당의사와 간호사 모두 놀람. 공기가 건조해서 가습기 설치. 산

소호스를 빼드리고 가래는 계속 뽑아드림. 아침에 두 시간 가량 앓아계시는 동안 우유와 보리차를 드시면서 밤새 사람들에게 “다들 뭘 좀 먹었나” 하심. 점심 때는 미음도 조금 드심.

6월7일- 상태가 갑자기 나빠짐. 밤새 가래를 뽑아드렸는데도 여전히 호흡이 곤란해 보임. 산소호스를 꽂아드림. 검은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 있고 초점이 없음. 거의 말을 못하시며 24시간 잠만 주무심.

6월8일- 어제보다 눈동자도 또렷하고 말씀도 잘하심. 주무시면서 구토물을 계속 흘리시길 하지만 구토로 인한 통증은 느끼지 못함. 기운이 모두 빠져나가 전혀 지탱을 못하심.

6월9일- 가래와 전신통증으로 괴로워 하심. “뭘 좀 먹어야지” 하시며 약과 미음을 잡수심. 생에 대한 애착 엿보임. 투병정신 대단하심. 살이 빠져 몸 이곳저곳 배긴다고 하심.

6월10일- 누워계셔도 잠을 못이루시고 무언가 생각에 잠기신 듯 눈을 뜨시고 병실에 있는 물체를 오랫동안 응시하고 계셨다. 가끔 몇시인지 확인하셨고 “쉬어 힘들어” 하시며 걱정해 주셨다. 아침부터 내내 결린 곳을 짚으시며 고통스러워 하셨다. 평소 어디가 아프시다고 말씀을 안 하셨던 분이라 “오늘 유난히 아프세요?” 하니 힘들다고 이젠 더 견디기 힘들다고 하셨다. 생각에 빠져 계신 것 같아 “무슨 생각 하세요?” 하니, “무슨 생각을 해. 아무 생각 없어” 하셨다. 깨어 계신 시간이 많아 계속 질문을 하면 “늘 그래. 늘 내 생활이 아래. 늘 아파” 하셨다.

갓죽1/2컵, 죽5수저, 우유 조금 나누어 드심.

간간히 가래 올라와 빼드림. 전신통증으로 괴로워하심. 간호사 주사 놓아드림. 욕창부위의 고통과 음식물 넘기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하심.

더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 같다며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여러번 하심. 다른 날과 달리 눈동자가 유난히 맑으셨다. 저녁이 되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몸이 차가워지기 시작하여 Hot Bak을 해드림. 맥박·호흡·혈압은 괜찮으신 편이었는데 무척 고통스러워 하심. 가래로 인해 호흡이 곤란하심. 24시, 24시30분 두차례 가래를 제거한 후 산소호스 꽂음. 이때부터 정신이 혼미해지시더니 알아보지 못하심.

6월11일- 새벽 2시부터 주무시기 시작, 4시30분경부터 급격히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이 곤란하심. 5시10분 주무시는 상태에서 운명하심.

6월12일- 애국지사 고 이래선 선생님의 장례식은 전국에서 오신 옥중동지들과 문의환 목사님을 비롯한 각계인사들, 그리고 많은 청년·학생들의 슬픔속에 93.6.12 오전 8시30분 성가병원 영안실에서 영결식을 갖고,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용미리 시립묘지에 고히 모셔졌습니다.

……… 후원회원 김은숙, 정영숙 님(한신대 사회복지학과 89학번)이 이래선 선생님이 입원하신 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정성을 다하여 병상을 지켜주시며 애쓰셨습니다.

■ 출소장기수를 찾아서

김명수 선생님과 ‘한밭골’의 따뜻한 사람들

손일순 (25세, 후원회원)

나의 생활에 짓눌려 곁에 있는 사람들을 잊고 지내는 사이 대전에 계신 김명수 선생님(71세)을 뵙고 온 지도 한달이 지났다.

지난달 초, 이른 아침 새벽녘에 비치던 가랑비가 대지의 숨결을 틔우고 한창 물이 오른 들녘의 초목이 나의 지친 두뇌를 깨치는 소리를 들으며 권오현 선생님과 나란히 대전으로 향했다.

권선생님에게서 김명수 선생님에 대한 짧은 소개를 들으며 난 새벽녘에 마친 일 때문에 졸음을 참지 못하고 대전에 도착 때까지 계속 잠을 잤다. 내가 살아온 날보다 더 긴 세월을 감옥에서 오직 조국과 민중에 대한 충심어린 사랑으로 일관해 오신 선생님의 모습을 그려보기란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간 서울에서 선생님들의 모습을 곁에서 봐왔기 때문이다.

대전 터미널에서 권선생님이 어느 한 분을 발견하시고는 몹시 기뻐하는 모습에 ‘설마’ 하는 의아심과 기쁨이 있었다. 걸걸한 목소리에 건강한 체구를 갖추신 분이 바로 김명수 선생님이셨다. 37년이란 긴 옥고에도 불구하고 끗끗한 의지와 건강을 지켜오신 김선생님께 존경과 고마움을 감출 수 없었다. 악수로 시작한 우리의 만남은 앞으로의 좋은 인연을 예고하고 있었다. 대전지역 불교연합에 계신 청년과 임일 아저씨와 함께 봉고차를 타고 선생님이 뵙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신 빈들교회로 향했다.

이곳 대전에 계신 선생님들을 모시기 위한 ‘사랑의 집’ 건립을 위해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모임을 주도하고 계신 목사님이 계신 곳이 바로 빈들교회였다. 오늘 선생님과의 만남은 소중한 것이다. 다름아니라 김선생님은 원래 다른 약속이 있으셨다 한다. 그간 옥고를 치루실 때 군산지역 동지들께서 텔조끼와 영치금을 보내주신 것과 출소 이후 도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군산에 가시려던 차에 서울에서 권선생님과 내가 온다는 전갈을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러 나오신 것이다.

빈들교회에 도착한 우리는 너무도 기뻤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마침 그날이 빈들교회 창립 8돐을 맞는 날이었다. 아담한 정원과 작은 예배당에서 모든 신도들이 가족처럼 지내는 작은 교회였다. 참 예쁜 교회였다. 기다리는 동안 창립 축하 예배가 끝나고, 공동체 식사가 준비되어서 우리는 자리를 함께 했다. 각 신도들이 준비해온 음식들로 차려진 공동체 식사 시간 내내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

공무원의 중립적 신분 보장 및 부정선거를 폭로하셨던 용감한 군수이신 한준수 전 연기군수님과 빈들교회 목사님이자 대전 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장을 맡고 계신 정지강 목사님과 여러 교우들.

이곳 신도들이 식사하는 동안 김선생님께 여러 음식을 권하고 수고하셨다는 말들과 '건강하세요'라는 덕담이 끊이지 않았다.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셨다. 식사 이후 작은 예배당에서 간담회가 있었다. 원래 초청인사로 내정돼 있으셨던 선생님이 군산 약속으로 못오신다고 했는데, 우리들의 방문으로 신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있게 된 것을 빈들교회 신도들은 무척이나 감사했다.

'남누리 북누리' 노래와 함께 진행된 간담회 중 신도 한분이 북쪽에 자녀분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김선생님이 올해 쉰셋(53세) 되는 '아이'가 있다는 답에 다들 가슴이 찡했다. 1957년, 선생님 나이 서른 다섯에 아이들(2남 1녀)을 뒤로하고 통일사업에 매진하는 동안 아이들 모두 떠나온 당시의 선생님보다 더 나이가 들었을 텐데, 아직도 선생님의 마음 속엔 아이들로 남아있는 것이다.

1973년부터 시작된 전항공작을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옥중기에 군사정권하의 인권유린과 고문수사에 분노를 느꼈다.

선생님은 그 고문과정에서 꼿꼿하게 신념을 지켜왔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인민이 준 과업(그 당시의 통일과업)을 완수치 못한 과오와 함께 그 인민의 뜻을 거역하는 두 번의 과오는 범하지 않겠다는 의리와 선생님의 충성과 가족에 대한 한없는 사랑이었노라고.

이후 대전지역의 「사랑의 집」 건립추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켜야 할 관점만 얘기하면 첫째, 선생님들의 노동생산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하며 둘째, 함께 하셨던 선생님들과 또한 뜻을 따르는 젊은 동지들이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다는 기조였다.

선생님 곁엔 정말이지 많은 동지들이 있었다. 서울에 있는 우리들이 자매결연을 맺어 선생님을 잘 돌봐드리고자 함은 좋았으나 이미 선생님 곁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마음이 놓이고 기뻤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생활에만 묻혀 있었던 모양이다. 김선생님은 백내장 증세가 있어 치료를 위해 하루 건너 한번씩 침을 맞으러 다니시는 대전불교연합의 한 청년이 도움을 주고 있어서 참 고마웠다.

대전 시내에 있는 찻집에 들러 선생님의 주소와 나와 친구들의 주소, 이름을 전네받으며 우리와 선생님의 관계는 맺어졌다.

많은 분들을 새로이 만나고 그 분들의 삶의 얘기를 듣느라 정작 선생님과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마음은 푸근하고 뿌듯했다.

선생님의 따뜻한 손과 웃음이 글을 쓰는 이 순간 되살아 난다.

■ 나의 삶, 나의 일터

자연과 아이들과 글쓰기 ...

신민경 (27세, 어린이도서연구회)

어린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기 시작한지 3년이 되었다.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이 되기 위해 고민도 많이하고, 공부도 많이 하지만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다.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아이들과의 만남은 결국 스스로가 풀어야 할 과제임을 느낀다.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불량 명랑소설, 파괴적인 전자오락, 폭력적인 일본만화, 자극적인 비디오,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에서 아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욕심인 것 같다. 그 보다는 내가 나서서 아이들에게 다양하고 건강한 아이들을 위한 문화를 만들고, 동화를 쓰고,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보다 빠른 길인 것 같다.

어릴 때부터 영재 교육을 시키면서 모든 교육의 목표를 일류대학 입학으로 맞추는 이 시대의 교육이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 그러니 병아리를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뜨리고, 개구리를 돌로 맞추는 생명을 로봇 장난감 정도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생길 수 밖에.

아이들이 바로커야 나라가 바로 된다는 말이 무시되고 있는 것 같다. 인간교육, 생명교육을 중요시 여기며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지만 벽에 부딪칠 때가 많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등을 강요하고, 남을 밟고 서는 것을 예사로 여기게 하고 있으니 어찌 아이들을 탓하랴. 하지만 곳곳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 다행이다. 전교조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학부모 모임, 비디오 모임, 글쓰기 모임 등, 내가 나가고 있는 ‘어린이도서연구회’도 그 중의 하나다.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내가 하는 일은 동화창작분과의 분과장을 맡아 모임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명랑동화가 판을 치는 어린이 독서 현실에서 의식있는 작가들이 좋은 동화를 많이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창작모임에 모인 사람들은 동화 습작기간은 얼마 안되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남다르다.

요즘은 환경 그림책을 만드느라 환경교육도 함께 하고 있다. 지난해 공해추방운동연합(지금의 환경운동연합)에서 환경교육을 받고 자원봉사를 해 온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지금도 환경운동연합 풍물페 활동을 하면서 여러 행사를 통해 환경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가치관이 바뀌고 생활양식이 변하지 않

는한 근본적인 환경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대한 토의를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폭로성, 고발성 환경 그림책이 아니라, 생명존중과 평화사상의 내용이 그려지는 환경 그림책이 될 것 같다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뜻을 함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른다. 늘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많은 회원님들이 내게는 대단한 힘이며 자랑이다. 환경 그림책을 하다 보니 유아 그림책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알아야 할 것 같아 어린이도서연구회 유아 그림책 비평모임에도 나가고 있다. 어릴때 부터 독서환경을 만들어 주고, 좋은 그림책을 보여주므로해서 상상력을 넓혀주고 참된 인간으로 자랄수 있게 해 주는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림책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린시절 책을 통한 인격형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는다. 아이들이 보고 듣는 것은 모두 아름답고 훌륭한 예술품이어야 한다. 그림책의 그림, 한줄의 글, 한편의 비디오 등이 감동적인 것이어야 한다.

어린이들을 만나고, 어린이들을 위한 공부와 창작을 하고, 여러행사에 참여하다 보면 한 달이 금방 지나간다. 그렇게 일년이 지나고 이년이 지났다. 요새는 어린이 문화운동을 위한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중이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으니 끝 길이 보일 것 같다.

즐거운 여가생활이 아닌 '과외공부'의 하나로 어린이들을 짐지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들때도 있지만 좋은 세상이 오기 전까지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을 계속 할 생각이다. 좋은 세상이 오면 학원들은 모두 마을 도서관이나 시청각교실 놀이공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스물여섯 해를 살면서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일을 기쁘게 하고 있음을 감사드린다.

■ 양심수 가족을 찾아서

〈구미유학생 사건 관련 김성만의 어머니, 최인화 님편〉

사형수의 어머니에서 무기수의 어머니로 ...

김혜순 (29세, 주부)

“간 첨 사형수의 엄마에서 무기수의 엄마가 되기까지 8년 여의 세월은 지난 60여 년의 삶보다 더 많은 눈물과 고통을 가져다 준 세월이었습니다. 두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로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아들녀석의 뒷모습을 보면서 흘려야 했던 그 눈물들, 고속도로 차창 밖으로 보이던 산천초목을 성만이가 살아나와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던 그 애절한 심정, 그것은 상상을 초월한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세월의 고통을 회상하면서 눈시울을 적시던 어머니는 그러나 구미유학생 사건은 85년 당시 활성화되는 학생들의 반미투쟁을 잠재우고 군부정권을 유지하려는 대표적인 조작사건이라고 못박았다.

이 사건의 주모자로 발표된 김성만은 당시 미국 웨스턴 일리노이 대학 대학원 정치학부를 휴학하고 잠시 귀국한 상태였다. 1985년 6월 6일 이른 아침 갑자기 들이닥친 낯선 사람들에게 끌려간 후 석달여 동안 수사를 받은 뒤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주모자로 부각되었다.

데모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나 하는 짓’이라 여기던 평범한 어머니는, 갑작스런 아들의 구

속으로 여느 민가협 어머니들처럼 아들의 뭇까지 살아내야 하는 고난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난데없는 아들의 체포에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초조와 불안에 떨었고 며칠만 조사하고 보낼테니 이웃에 알리지 말라는 저들의 회유에 속수무책으로 있었습니다. 우리 성만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무턱대고 선처만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9월 9일 공안당국의 발표는 어머니를 아연실색케 했다.

— 재미유학생 김성만, 양동화, 황대권은 미국 유학시 〈해외인민보〉라는 교포신문을 발행하는 전직 언론인 서정균에게 포섭되어 북괴요원들에게 간첩활동에 대한 지령을 받고 국내에 들어와 의식화 교육, 유인물 제작 배포, 소요 획책, 정보수집 등의 간첩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그밖의 관련 피고인들은 이들의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방조했거나 반국가 단체를 찬양·고무했다는 것이다.

성격이 온순하기 그지없었고,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큰 가게를 피해 가난한 사람들 것을 사줘야 한다며 구멍가게에서 사던 착한 아들이 간첩

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머님의 이 순진한 믿음은 여지없이 빗나갔고 김성만은 1986년 9월 23일 대법원에서 간첩죄로 사형을 확정받았다. 아들의 사형선고와 함께 어머니도 '간첩 사형수의 어머니'가 되어 고통으로 얼룩진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친척이나 친구들도 소식을 끊고 아무도 접근해 오지 않았지. 재판도 직계 가족만 방청했고 시장도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새벽녘에 봐야 했어요."

이때 어머님께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던 곳이 85년 겨울에 결성된 민가협이었다. 매일 아침 구치소로 달려가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아들을 면회하고 곧바로 민가협으로 출근 하는 게 하루의 일과가 돼버렸다. 그때 구치소에서 집계한 출근성적이 김성만 어머니가 1위였다 하니 자식사랑이 얼마나 지극했나를 짐작케 한다.

"간첩죄를 쓴 사형수의 어머니로서 3년여의 세월은 눈물없이는 얘기할 수 없는 통한의 세월이었습니다. 구속자 신상 카드가 제자리에 꽂혀 있지 않으면 간밤에 사형집행이라도 당하지 않았나 가슴 졸이고 면회 대기시간이라도 길어질라치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아들의 목숨이었기에 간첩죄의 부당함을 따질여유도 없이 아들놈의 목숨만을 살려야겠다는 일념에서 미친듯이 뛰어다녔다고 한다.

"우리 아들 성만이를 살려주세요."

"사형수 김성만이를 살려주세요."

어머니의 절규는 발길이 뒹지 않은 곳이 없었다. 호소문이 담긴 가방을 들고 전철이건 버스건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뛰어다녔고 각계에 탄원서를 보내는 등 아들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했다. 이를 보다못한 종교계에서도 기도회를 마련하고 <김성만 구명위원회>를 만들어 더욱 조직적인 구명운동을 펼쳐나갔고 국제사면위원회(웹네스티)에서도 김성만을 특정 양심수로 인정하여 구명운동에 활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

이런 분들의 정성어린 도움과 국민들의 6월항쟁의 힘으로 김성만은 1988년 12월 21일 6공화국 시국사변 대사면 때 무기로 감형되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아주 몸져 누우셨다. 심장이 약했던 데다 그 동안의 극도의 불안과 공포가 신경쇠약을 가져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 어머니는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그동안 인도적 차원의 구명운동만 있었을 뿐 아들에게 썩워진 '간첩죄'의 부당함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고 또 아들의 뜻을 세상에 알려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우리 성만이는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를 따지지 않고 어떤 사회에서도 실현될 수 있는 민족의 해방과 통일 민주주의를 염원한 거였습니다. 북한 사람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외국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또 민족 통일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직접 들어보고 토론하기 위한 아주 소박한 생각이었지요."

어머니는 아들의 이런 뜻을 널리 알리고 간첩죄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끝없는 사형수 생

활 동안 자기 정리를 해왔던 성만씨의 편지를 모아 「사형수 작곡 양심수 작사」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그리고 93년 2월에는 독일 장기수 대책협의회 초청으로 유럽을 방문, 양심수 공청회에 참석하여 한국의 장기수 상황을 보고하고 아들에게 쓴 위진 간첩죄와 무기징역의 형벌의 부당함을 알리는 기회도 가졌다. 이 일이 이제 어머님 생활의 전부가 돼버린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시름은 여전히 깊으시다. 아들 성만이가 무기수로 옥살 이를 하는 동안 사회는 참으로 많이 변했다.

경제인, 대학생, 정부관리들도 이렇다 할 제재 없이 북한을 방문하고 다녀온 여러 인사들도 석방되었는데 북한을 방문하지도 않고 제3국에서 북한 사람을 만난 것뿐인 성만이는 왜 석방이 안 되는지, 그 서슬퍼런 6공화국 때에도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되었는데 문민정부에서는 왜 아무런 조치도 없는지, 간첩인지 아닌지는 안기부가 더 잘 알고 군사정권이 고문을 통해 조작한 사건을

문민정부에서는 왜 해결의 실마리 조차 풀지 못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3·6석방자의 명단에도 5·27 사면조치 때에도 어머니의 한가닥 희망은 무참히 꺽여버렸다.

문민정부가 되었다지만 법무부장관의 면담요청도 번번이 거부되고 마는 때, 어머니는 오늘도 민가협에 출근하여 양심수석방을 위한 집회와 농성에 빠짐없이 참석하신다. 모아진 국민들의 힘만이 아들을 그 어두운 감방에서 구할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광주교도소에 있는 성만이에게 한 달에 두 번, 거르지 않고 면회를 다녀옵니다. 8시간 왕복해서 갔다오면 그 이튿날은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어요. 내 나이가 올해 예순일곱이오.”라고 힘겹게 말하시는 어머니. 칠순을 바라보는 노모의 힘겨운 옥바라지는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

어머님 그 서늘한 눈매에 웃음꽃이 필수 있는 날을 앞당기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 농성에 참여하고 계신 김성만 어머님 (오른쪽에서 세번째)

■ 산행기

희망같은 하늘

경희대 열린사회

손 꼽아 소풍을 기다리던 어린시절을 생각했다. 아마 그런 설레임이 잠못들게 했을 것이다. 반듯이 누운 채 어둠만 칠해져 있는 천정에다 갖가지 상상을 그려보았다. 어떤 모습들일까. 우리가 만나뵙게 될 분들, 수십년의 세월 한자락 푸른 하늘만을 그리워하셨을 그분들은. 처음 후원회와 인연을 맺고, 오래전부터 산행에 참여하려고 하였지만 날씨가 궂거나 바쁜 사정들을 평계하며 쉽게 동참하지 못했었다. 아직 학생의 신분으로서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하지만 결국은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었나 생각해본다. 그렇게 여러 생각속을 넘나들다 잠이 든 것은 새벽녘이 다 되어서인 것 같다.

여행을 떠난다고 부산을 떨었던 고교시절 이후 오랫만에 맛보는 들뜬 기분이었다.

잠이 깬 그날 아침도 그러하였다. 날씨는 화창하지는 않았지만 푸르름속에서 맞는 서늘함도 그리 싫지만은 않은 것이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우리 모임에서는 세명 밖에 참가할 수 없었지만 기쁘게 도봉산으로 달려갔다.

어떤 미지의 세계, 낯선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는 느낌, 그와 함께 그곳의 신비로움에 대한 강한 열정이라고 해야 할까. 발바닥을 두드리는 보도블럭 위에서도, 덜컹이는 전철칸에서도, 도시의 답답함과 메마름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 산을 찾는 사람들 물결속에서도, 나에게 밀어닥친 건 차라리 어떤 두려움이라고 하여야 옳았을지도 모르겠다. 떳떳이 고개를 들고 어르신들을 맞을 수는 있을까.

오랜 세월 창살속에 가두어놓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실련지.

생명이 그리웠던, 살아있는 것은 모두다 그리웠던 그날들도 우리는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을 마음껏 느끼며 살아왔지 않은가.

울긋불긋한 모습을 한, 그런 갖가지 생각을 가졌을 사람들에 떠밀려 도봉산역을 빠져나왔다. 늦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타나신 어르신들.

할아버지와 할머니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모습들. 바로 지금의 나의 젊음을 창살안에서 보낸 분들. 그러나 의연한 모습이었다. 사랑과 용서의 눈빛이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수줍음이 많아 따뜻한 인사, 다정한 얘기는 전네지 못하였지만 마음속으로 봇물터지듯 흐르는 애정

의 호흡을 그분들은 느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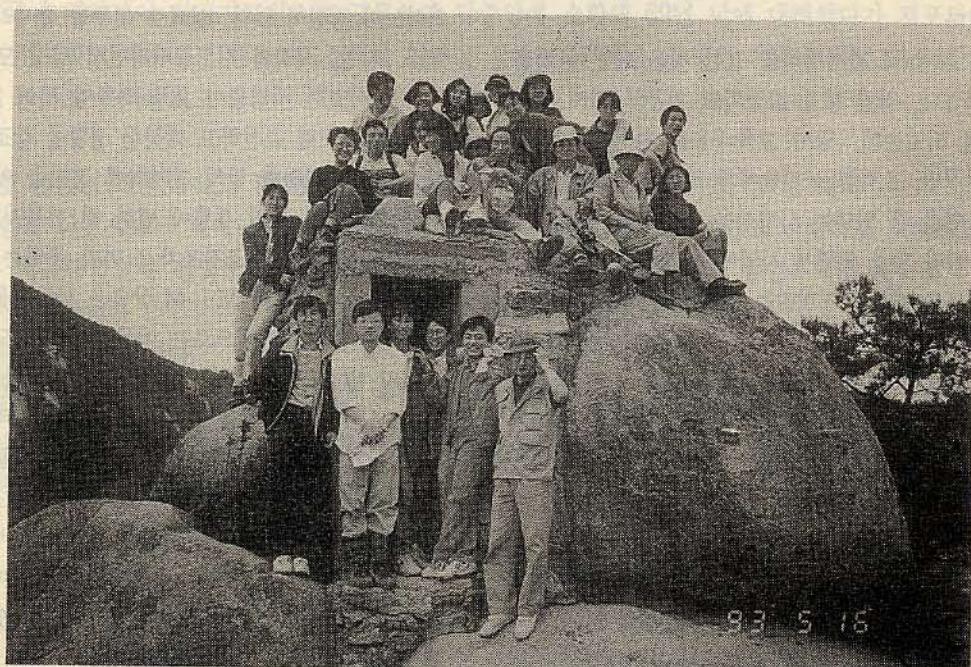
곧 산행은 시작되었고 처음 참가한 우리는 뒤풍무니를 따랐다. 오월의 초록은 그 푸르름을 더해가고 그 위대한 자연속에 던져진 우리들은 푸르름을 들여마시고, 푸르름을 들었다. 푸르름이 혈관속에서 맥놀이쳐서, 기꺼이 우리는 하나가 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모두를 동등한 단위에 설 수 있게 하여 인간해방을 이를 것만 같았다. 웃음이 묻어나는 밝은 얼굴들, 노래소리와도 같이 흥이 있고 정겨운 목소리, 그리고 서로 맞잡은 손에 손들. 이것이 바로 자연의 모습이리라. 어르신들이 있어 산행은 더뎠으나 지루함을 모를 지경이었다. 가지고 온 음식을 나눠 식사를 했다. 빈손이었던 우리는 푸짐하게 얄어먹긴 했으나, 그 대가로 오락을 준비해야 했다. 다들 꽁하는 성격들이라 그런 방면에 재주가 없었으나 불행중 다행으로 우연히 함께 한 후배덕에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다. 간단한 오락과 수령생활에 대한 얘기를 듣고나서 다시 산행을 시작했다.

몇시간 후에 힘이 부치신 두 할머니를 뒤로하고 정상에 올랐다. 자주 오는 곳이지만 정상의 바위산을 볼 때마다(또 때로는 그 바위에 딱지딱지 매달려있는 사람들 모습과 함께) 다짐하는 것이 있다. 그 앞에 서있는 모습은 나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나 치열하게 살아가리라는.

다시 우리가 찾는 산이 도봉산만이 아니길, 북의 산들도 우리 두발로 성큼성큼 오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뒤로 하며 산길을 내려왔다.

수십년을 하늘 한번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갇혀 지내신 그분들이 하늘을 만지며 느끼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그 희망같은 하늘, 생활같은 하늘, 언제나 고개들어 그 하늘을 볼까.



■ 이런얘기 저런얘기

성실한 삶만으로도 꿈을 이룰 수 있다면...

이승아 (25세, 학원강사)

며칠 전 저녁, 한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대학동창으로 마음이 잘 통했던 그 친구와는 평소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큰일이나 중요한 일이 생기면 항상 의논하는 사이였다. 그 친구는 근래에 자신이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전에 하던 일과는 달리 많은 보람을 느낀다면서 나에게도 권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토록 자신있게 말하는 새로운 일이란 게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정겨운 친구를 볼 마음에 흔쾌히 약속을 했다. 그러나 약속 당일날 나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친구가 나를 데려간 곳은 소위 '파라미드'라고 불리는 M·L·M 교육장이었던 것이다. 화장실에 가겠다고 교육장을 빠져나와 친구와 친구의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몇시간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나를 못 믿는다, 내 마음을 물리주니 너무 섭섭하다'라고 매달리는 친구를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계속되는 허탈감은 어쩔 수 없었다.

내가 M·L·M 판매방식을 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작년 여름 고등학교 친구에 의해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 교육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순 없었지만, 소박한 서민들에게 적은 자본으로 일화천금을 얻을 수 있다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자칭 믿음사업'이라 말을 하면서 사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 간의 신의도 애정도 저버리는 것으로 몰아대는 분위기에 무척 화가 났던 기억이 있다. M·L·M이란 Multi Level Marketing의 약자로 '여러단계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기업'이다. 다단계판매 기법이라 불리기도 하며, 판매가 성공할 경우 노력이나 투자에 비해 큰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사람들을 계속 강하게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교육내용은 그 때와는 조금 다른 것이었다. 그 당시 사람들을 끌기 위한 '당근'은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위에 '사회에서 무기력한 자신이

M·L·M을 통해 잃어버린 꿈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분홍빛 환상을 덧칠해 놓았던 것이다. 그 친구에게도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그는 졸업 후 공무원 생활, 건설회사 등을 거치면서 사회에 대한 염증과 자신에 대한 무기력감을 여러 차례 호소했었다. 그러다 00회에 들어가 뜻맞는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비로소 활기를 되찾기도 했었다. 물론 그 친구는 M·L·M 사업방식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사업을 시작했을 것이다. 또한 단순히 큰 돈만 꿈꾸는 것이 아닌 사회와 사람에 대한 순수한 마음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이 아무리 좋은 뜻과 계획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결국 돈으로 꿈과 희망을 살 수 있다는 황금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것 뿐이며, 어려운 여건을 사람들과 함께 하나 하나 짖고 목표를 향해 나이가는 것이 아닌 단시일에 이뤄내려는 조급한 마음임에 다름아닌 것이다.

요즘 언론은 문민정부의 '과감한 개혁'에 대해 예찬하느라 정신이 없다. 실제로 모두들 몸사리기에 바쁘다. 자칭, 사회의 지도층이라면서 실상 모든 비리의 주범이었던 사람들이 모두 하루밤 사이 개과천선이나 한 것처럼 조신하고 깨끗한 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그토록 화려한 말의 잔치속에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생활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조금이라도 나아질 조짐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M·L·M 상술은 사람들을 매료시킨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점차 꿈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M·L·M은 계속 환상을 불러일으키고 다시 빼아픈 좌절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M·L·M 사업자들이 말하는 사람들간의 '신뢰와 믿음'을 진정으로 저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다시금 주위를 둘러보고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아야 할 것이다. 소박한 서민들이 성실과 건강한 마음만으로도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편지를 보냅시다!

후원회원 여러분!

어느새 더운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곁에는 햇살을
느낄 겨를도 없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따스한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의 정성어린 편지 한장이 15척 담장안 그늘진 곳에 햇살로
번질 것입니다.

* 김의진 선생님(대전3574) / 1930. 7. 13생(64세) / 69. 6. 10구속, 무기형, 25년 복역

경북 영덕군에서 빈농의 아들로 출생. 48년 18세 나이로 입산해 활동. 이후 52년 5월경에 황해
도 금강학원에 들어감. 졸업 후 북청 과수 고등전문학교에 진학, 함남 신상군 인민위원회 농업기술
부 과수지도원으로 활동하다 69년 일행 14명을 실은 배의 안내원으로 상륙했고 전투가 벌어져 배는
월북하고 혼자서 체포되었다. 체포 당시에 중상을 입었는데 지금도 오른쪽 다리를 쓰지 못하고 몸
여러 군데 총상 자국이 남아 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살고 있는데 73~76년의 잔혹한 전향테러
에도 굴함없이 의연하게 이겨내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지키고 있다.

* 김창원 선생님(전주2063) / 1933. 10. 17생(61세) / 69. 6. 12구속, 무기형, 25년 복역

서울에서 사업하는 부모에게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전쟁시기 어린 중학생의 신분으로 의용군에
지원입대해서 전투에 참가했다. 종전 후 석탄고등전문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한후 중공업위원회 석탄
관리국에 배치되어 상급지도원으로 근무하다 당중앙에 소환돼 69년 남에 내려왔다가 체포되어 무기
형을 선고받고 계속해서 대전교도소에서 징역을 살아왔다. 작은 동생은 미국에 이민 가서 간간히 소
식도 전하고 옥바라지도 하지만 막내동생은 서울에 살고 있음에도 전혀 소식이 없다.

* 한장호 선생님(대전3542) / 1923. 5. 1생(71세) / 57. 11. 20구속, 무기형, 37년 복역

함북 나진시에서 태어났다. 일제말에 일본 유학중 학병 징집을 단연코 반대하고 도피하였다. 해
방후 서울대학교에 편입해 경제학과를 48년에 졸업했는데 학생시절과 졸업후에도 계속해서 지하혁
명가로 활동하다 인민군이 서울 입성 후 당재건 사업에 참여했다. 56년에 남으로 내려왔다가 구속되
어 무기징역을 받았다.

73~75년 광주교도소에서 자행된 가혹한 전향공작 기간중 가장 수난을 많이 겪은 사람으로 그때
당시의 후유증으로 인해 지금도 심한 좌골신경통으로 고생하고 있으나 '책벌레'란 소리를 들을 정도
로 하루종일 책속에서만 생활하고 있다.

• • • • 주 소 • • • •

대전교도소 : (305-251)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 36번지

전주교도소 : (560-28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3가 99

■ 알력드립니다

* 이런 일이 있었어요! *

5. 1 -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가 있었습니다. (연세대 노천극장)
5. 2 - 후원회원 손일순 님과 함께 대전 성애원에 계신 김명수 선생님을 방문했습니다.
- 후원회원 홍전영 님이 유한옥 선생님을 방문했습니다.
5. 3 - 민가협이 3일부터 6일까지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 후원회 소식지 편집회의가 있었습니다. (사무실)
- 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6시, 이덕우 변호사 사무실)
5. 5 - 시립양로원에 계시는 임병호 선생님을 방문했습니다.
- 후원회원 이대팀 이선영, 허유정 님이 농성장에 격려방문을 와주셨습니다.
5. 6 - 회원사업 기획모임 회의가 있었습니다. (8시, 사무실)
후원회원 임은영, 김언경, 신유호, 나명주 님 등이 함께 해, 5월 산행과
소식지 내용 검토, 5월 칠순잔치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5. 7 - 명동성당으로 김수환 추기경 방문, 일본 서화전에서 모인 성금을 일본카톨릭 소마 주교님이
김 추기경께 전달했고, 그것을 다시 후원회에서 전달받았습니다.

<전달액수> : 총 12,027,000엔

주최측의 뜻대로, 이중 3백만원은 구속학생 학부모 협의회에,
3백만원은 장기수 가족운동 협의회에,
3백만원은 유가협에,
5백만원은 민가협 사무국에,
2백만원은 청년민주인사가족모임에 전달했습니다
5. 8 - 어버이 날을 맞아 후원회원 나명주, 손일순, 이승아 님이 봉천동 만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 후원회원 임은영, 선난숙, 이소영, 장희연 님이 금재성 선생님과 좋은 시간을 나눴다고 합니다.
5. 9 - 수유리 만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5. 10 - 민주항쟁 국민위원회 결성식이 있었습니다. (기독교회관)
- '벽산사무노동조합' 위원장과 사무국장 님이 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시고 성금 505,000원을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 30만원은 위암으로 성가병원에 입원중이신 아래선 선생님께 치료비로 전해 드렸고,
나머지는 출소장기수 선생님들께 생활지원을 해드렸습니다.)

5.11 - 민족민주열사 범국민 추모사업회 준비위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5.14 - 소식지 19호를 발송했습니다.

후원회원 장선미, 손일순, 권미영 님이 도와주셨습니다.

- 장기수 후원을 위한 공동모임이 있었습니다. (기독교회관)
- 후원회원들과 영화 '계엄령' (그랑프리 극장) 시사회에 참석했습니다.
- 민족민주열사 추모사업회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백주년 기념관)
- 서화전에 작품 내주신 선생님들께 조출한 식사대접을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5.15 - 민가협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11시, 사무실)

- 조성만 열사 추모비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3시, 서울대)
- '5.18 민중항쟁 기념식 및 정신계승대회'가 있었습니다. (2시, 대학로)

5.16 - 5월 산행이 있었습니다. (10시, 도봉산)

많은 회원들이 함께한 아주 즐겁고 유익한 시간들이었어요.

5.18 - 민중항쟁기념 국민위원회 주최 광주민중항쟁 13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 아래선 선생님께서 위암 병세가 악화되어 성가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5.19 - 서울대 대동제 기간 중, 구학협 장터가 있었습니다.

- 서울대 유가협 장터에 격려방문을 다녀왔습니다.
- 출소하신 선생님들을 모실 집을 드디어 계약했습니다. (낙성대 부근)

5.23 - 김귀정 열사 추모사업회 발기인대회와 마석 모란공원 묘소에 참배를 다녀왔습니다.

(성균관대)

- '일터를 사랑하는 청년모임' 하루주막에 함께 했습니다.

5.24 - 구속중인 장기수 김태룡 씨의 자녀에게 L.A 양심수 자녀돕기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5.25 -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농성'이 이틀간 기독교인권위에서 있었습니다.

- 단국대 법사회학회와 장기수 후원을 위한 공동장터가 있었습니다.

5.27 - 사면조치 (?)로 38명의 양심수가 석방되었습니다.

(장기수는 천광섭, 고창표, 김요환, 김현규 네분이 석방됨)

5.28 - 한총련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5.29 - 출소장기수 네분의 선생님께서 (권양섭, 조창손, 김우택, 김용규)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 후원회원 나명주 외 일터사랑회 여러분과 시립양로원에 계신 임병호 선생님을 방문했습니다.
- 5.30 - 후원회원 음시룡 팀과 함께 아산요양원의 이종환 선생님을 방문했습니다.
- 5.31 - 구속중인 조덕원씨 자녀에게 L.A 양심수 자녀돕기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 임종석씨 외 5.27 석방자 여러분들이 사무실에 인사차 방문 오셨습니다.

* 회원 동정 *

..... 오병철 선생님 (통혁당 사건으로 20년 복역)께서 지난 5월 25일, 신촌에 겸도관을 개관하셨습니다. 개관식 당일, 많은 장기수 선생님들과 후원회원 등 약 200여명의 손님들이 함께해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겸관〉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86-22호) TEL: 324-6409

오병철 선생님 : 1937년 경남 합천에서 출생.

1955년 대구 경북고등학교를 졸업.

1965년 서울대 철학과 졸업.

1968년 수원 비봉농고 교사로 재직중.

국가보안법 위반(통혁당사건)으로 구속되어 20년 복역.

현재 부인 윤일숙 님은 출판사 일을 하고 계시고,

파님 오수강 님은 양심수 후원회원으로 활동중

..... 5월23일, 류한욱 선생님 79회 생신잔치

후원회 운영위원 소수영 님과 후원회원 홍전영 님이 꽃동네에 계신 선생님의 생신을 축하드리고 왔습니다. 아직도 냉수마찰을 새벽마다 하시고, 통일의 그 날 북녘의 기족과 재회할 날을 갈망하는 선생님은 하루 빨리 서울에 오실 수 있기를 당부하셨습니다.

• 고침 •

아니! 이런 큰 실수가!

지난 호 '출소 장기수를 찾아서' 를 써 주신 문성원 님의

나이를 무려 다섯살이나 높여 실었습니다.

장가도 안간 서른살 미남 슷총각의 마음을 심란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서른살로 정정합니다!"

* 광 고 *

“푸르른 실록의 계절입니다.

마음과 몸을 활짝 열고 산내음을 들이켜는 우리들 가슴에는
언제나 기운이 넘쳐납니다.

한달간 보지 못했던 반가운 얼굴들을 마주하며
우리 서로 어우러지는 대동의 한마당을 가져보자구요!”

◎ 언제 : 93년 6월 20일 (일) / 오전 10시 정각

◎ 어디로 : 도봉산

(“또 도봉산이냐구요? 모르는 소리
이번엔 더 멋있는 다른 코스로 갈거예요.”)

◎ 모이는 곳 : 도봉산 안내표지판 앞

◎ 교통편 : 전철 - 도봉산역

버스 - 19번 종점

◎ 준비물 : 각자 도시락, 회비 3,000원

* 새회원을 환영합니다! *

- | | |
|------------------------|-----------------------------|
| 1. 이건범 (남, 3.6석방자) | 10. 박진웅 (남, 강남의림한방병원) |
| 2. 임 일 (남, 대전시) | 11. 바.실.모. (역사문제연구소 내) |
| 3. 권미영 (여, 구로병원 간호원) | 12. 고미애 (여, 안양시) |
| 4.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 13. 이영재 (남, 카톨릭대학교 신학부) |
| 5. 노희찬 (남, 진정추 대표) | 14. 오창익 (남, 한남동) |
| 6. 김영수 (남, 진정추 부대표) | 15. 이유경 (여, 한겨례신문사 광고관리부) |
| 7. 주대환 (남, =) | 16. 정승희 (여, 북가좌2동) |
| 8. 벽산 사무 노동조합 | |
| 9. 김용승 (남, 봉천동) | |

〈 지난 6월 2일 김국홍, 함세환 노인 송환을 추진하는 추진본부 발족 기자회견이 서울, 대전, 광주에서 동시에 있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문을 실습니다.〉

김국홍, 함세환 노인의 귀향을 요구하며!

남 북의 분단으로 혈육이 갈라져 살아야만 하는 이산가족의 아픔은 단지 그들만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민족 모두의 아픔이다. 7천만 민족의 아픔과 슬픔을 해소하는 길은 오직 하루빨리 통일조국을 건설하는 길 뿐이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남북은 지난 92년 2월 19일에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발효시켰다.

그리고 지난 3월 19일에는 인민군 종군기자 이인모 노인이 43년 만에 당사자의 끈질긴 귀향의지 표현과 남북겨레의 요구, 그리고 양 당국의 합의로 고향과 가족이 있는 북녘으로 돌아갔다.

꿈에 그리던 한가족의 재결합은 인도주의 정신에도 맞거니와 판문점을 통한 남북왕래의 선례를 남김으로써 분단의 벽을 허물고 통일로 가는 또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일이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격려의 박수를 보냈고, 이산가족 모두가 새로운 희망으로 이 과정을 지켜보았다.

남북 합의서 정신에 따라 이제까지의 대결을 지양하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며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협뜯고 비방하거나 침략하지 않으며 온겨레의 자유로운 남북왕래와 민족공동 이익을 위한 합작사업으로 통일지향의 밝은 내일을 약속하는 민족적 경사로 맞았던 것이다.

이와같은 이인모 노인의 송환과 합의서 정신의 희망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핵' 문제와 '팀스피리트' 등 국제정치의 패권주의 논리속에 민족의 염원과 이익은 상처를 입고 남북사이엔 대화마저 끊기게 되었다.

이러한 긴장상태는 남북 어느 쪽에도 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족역량의 물적, 인적 자원 상당 부분이 불필요한 민족간 대결로 쓰여져 7천만 겨레의 고통과 자존심에까지 흙을 내고 있다.

다행히 최근 남북간엔 대화재개의 노력이 엿보이고 있다. 민족문제의 자주적 해결은 겨레 모두의 바램일 것이다.

이러한 때에 이인모 노인 송환전례를 잇는 사업으로 비슷한 처지의 김국홍, 함세환 두 노인이 북녘 고향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요구가 많아졌다.

이 두 노인은 모두 전쟁 때 군인으로 남쪽에 내려왔다가 잡힌 전쟁포로였으며 본인들이 한결같이 고향과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단과 냉전시대의 피해자로 수십년 옥고를 치루고, 이제는 의지할 곳 없는 노인이 된 이들을 하루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남은 여생이나마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간사회의 당연한 본분이자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에 우리는 김국홍, 함세환 노인의 인도주의적 귀향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 두 노인의 귀향을 성사시키는 것은 역대정권에 의해 사장되어온 인도주의 정신을 새롭게 복원해내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화해와 공존의 통일시대로 변화시켜내는 폐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분단 반세기의 대결을 지양하고, 민족대단결의 점진적 실천으로 갈라진 가족들이 당사자 자유의지대로 다시 만나게 함으로써 남북간 신뢰를 쌓아나가고 통일로 이어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기에 우리는 정부당국의 혁명한 결정과 동참을 바라며, 두 노인의 귀향이 성사되는 그날까지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1993년 6월 2일

김국홍, 함세환 노인 송환추진본부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민변, 민가협, 불교 인권위, 천주교 인권위,

한교협 인권위, 대전 추진위원회, 광주 추진위원회)